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한국조선해양	6,815.5	16.4	96,300	-0.4	-16.3	-12.5	-25.1	67.1	32.2	0.5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4,975.6	20.6	305,500	-1.1	-9.3	-0.7	-11.7	4.1	3.4	0.5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248.4	6.2	12,200	0.8	-24.9	-39.0	-45.0	1.2	1.0	0.1	0.1	9.3	9.7
현대건설기계	554.6	11.6	28,150	0.7	-23.3	-32.2	-34.1	1.8	1.3	0.2	0.2	11.7	13.9
삼성중공업	4,284.0	19.6	6,800	1.2	-12.5	-13.0	-8.2	42.9	21.3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637.3	12.8	24,600	0.8	-22.4	-9.4	-28.0	8.6	8.7	0.7	0.6	9.0	7.6
현대미포조선	1,505.8	15.1	37,700	-1.3	-20.1	-26.8	-37.2	8.1	5.9	0.3	0.3	3.6	4.8
한진중공업	369.3	21.0	4,435	0.0	-23.4	-46.1	-46.4	89.2	22.3	0.6	0.6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069.9	21.2	76,100	2.4	-14.1	-2.8	-28.9	13.4	13.1	1.8	1.6	14.6	13.3
두산밥캣	3,583.9	26.8	35,750	0.0	-1.0	12.1	15.4	13.1	12.3	1.0	1.0	7.4	7.6
현대로템	1,355.8	4.2	15,950	2.2	-19.4	-15.8	-42.7	20.6	14.0	0.9	0.9	4.5	6.3
하이룩코리아	228.7	46.9	16,800	-3.7	-7.2	-7.7	2.1	7.6	7.0	0.6	0.6	8.8	9.0
성광벤드	258.8	18.7	9,050	0.6	-13.0	-17.7	-20.6	800.0	32.4	0.6	0.6	0.1	1.8
태광	223.7	11.7	8,440	-0.5	-17.3	-21.1	-27.9	50.4	24.6	0.5	0.5	1.0	2.1
두산중공업	1,093.6	11.6	5,410	1.9	-13.0	-11.9	-35.6	-16.2	18.2	0.2	0.4	-0.1	3.4
두산인프라코어	1,184.4	16.9	5,690	-0.9	-6.3	-13.5	-25.0	3.9	4.1	0.6	0.5	17.7	14.1
HSD엔진	98.8	3.5	3,000	0.7	-15.3	-20.2	-43.2	-7.9	-6.7	0.4	0.5	-4.7	-7.2
한국항공우주산업	3,650.4	20.1	37,450	0.7	9.7	22.4	17.4	54.6	18.3	3.3	3.0	6.1	17.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582.9	14.9	30,700	1.0	-2.5	1.0	-5.5	127.2	22.8	0.7	0.7	0.6	2.9
LIG넥스원	619.3	6.2	28,150	1.4	-0.9	-15.3	-23.8	64.8	N/A	1.3	N/A	2.4	2.4
태웅	168.1	4.3	8,400	-0.4	-18.0	-7.8	-20.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1.8	4.7	7,850	2.6	-11.1	-18.8	1.7	-16.6	11.5	2.9	2.3	-16.2	22.3
한국카본	306.4	13.6	6,970	0.6	-13.8	-16.7	-1.0	108.5	18.2	1.0	1.0	0.9	5.4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larksons books 'robust' first half performance as shipbroking results shine

Clarksons이 상반기 컨테이너시장의 약세와 지속되는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선박중개 성과를 기록하였음. 조선시장의 지속적인 회복과 IMO 2020에 따른 성장세를 낙관함. 상반기 ClarkSea Index는 전년대비 8%, BDI지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최근 반등, 탱커 시장 이익은 전년대비 80% 성장 기록함. (TradeWinds)

Stevenson signals Diamond S shipping set to renew its MR fleet

Diamond S Shipping 선단의 52척 평균 선령은 10년이며 5척은 선령이 13년을 초과하였고, 7척 이상의 선령이 12년을 초과하였음. 탱커들의 총 중량톤수는 250만DWT이며 전체 기지는 8.68억달러로 알려짐. 좋은 상태의 중고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나, 신규 발주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LNG선 최강자' 한국 조선소 견제 위해 손잡은 中·日

중국원양해운(COSCO)과 일본 MOL(Mitsui O.S.K. Line)은 6월 LNG 및 에탄 가스 운송 프로젝트 협력을 확대하는 MOU체결, 향후 LNG 발주를 중국 조선소에 몰아줄 가능성 보도됨.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 장쑤뉴앙장강과 일본 특수선 전문업체 Mitsui E&S의 합작조선소가 이달 내로 출범할 예정이며 LNG 운반선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보도됨. (조선비즈)

'여름휴가 끝' 조선3사, 임단협 협상 재개...파업 분수령

현대중공업은 13일 임단협 관련 6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하는 노조가 파업 등 강경 투쟁방침을 이어갈지 이번주가 분수령. 대우조선해양은 노조가 쟁의원을 확보했으며 기본급인상과 정년연장, 사내 하청직원 채용개선 등 요구중임. (뉴스팀)

성동조선, '매각 재시도' 회생계획안 제출

성동조선해양이 매각을 시도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함. 법원이 받아들이면 성동조선은 당장의 청산 위기를 넘기고 연말까지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10월 18일. 성동조선은 우선 회생계획안을 가결 받은 후 연말까지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됨. (머니투데이)

조선업에도 '탈일본화' 본격 가세...현대중공업, 일본구매처 한국 기업들로 '변경'

현대중공업은 최고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기자재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구매선 다변화를 위한 검토중임. LNG선 건조에 필요한 27개 주요항목 중에서 15개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나머지 12개 품목은 미국, 유럽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도됨. (MTN)